



▲ 최희섭
▶ 김상현

호랑이 '8월 대기록' 기대하라

CK포에 이용규까지 방망이 부활 팀 3000홈런 '-5' 뛰고 홈치고 '질주 본능'까지... 팀 3500도루 초읽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KIA는 기동력과 장타력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4강 진출의 청신호를 켰다.

KIA는 지난주 롯데, SK를 만나 5경기를 치르면서 6차례 베이스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 또 전반기까지 59개의 팀홈런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홈런 부문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5경기에서 8번에 걸쳐 담장을 넘기며 숨겨진 장타력도 과시했다.

기동력과 장타력의 절묘한 조화 속에 KIA는 어려운 상대들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4승을 거뒀다.

더 빠르고, 더 강해진 KIA는 4강행 불씨를 지핀 것은 물론 대기록 달성 초읽기에도 들어갔다.

2일 현재 KIA는 3493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3500도루 고지에 7개의 도루만을 남겨두고 있다. '질주본능'의 신종길까지 전력에 힘을 보태는 등 KIA가 후반기 들어 더 과감한 주루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 3500도루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김일권, 이순철 그리고 이중범으로 대도 계보를 이어온 타이거즈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3500도루를 기록한 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장타기록도 준비되고 있다. KIA는 2일 현재

2995개의 홈런을 쏟아내면서 3000홈런 고지에 근접했다. 5개의 한방이 더해진다면 역대 두 번째로 3000 홈런을 기록하게 된다.

3000홈런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나지완-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지는 장타라인을 구축했던 KIA는 올 시즌 나지완의 부진과 김상현의 부상 속에 홈런 부문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부동의 홈런타자 김

상현-최희섭은 물론 톱타자 이용규까지 연거푸 홈런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백전노장 이중범과 아기호랑이 안치홍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채종범까지 손맛을 보면서 3000홈런의 주인공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팀 대기록 달성을 앞두고 있는 이번주 이종범도 개인기록에 도전한다. 이중범은 이번주 4경기에 이블을 올리게 되면 역대 16번째로 1600경기 출장 기록을 쓰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소식

○KIA타이거즈 올스타전 참가 선수단이 3일 오전 뇌경색으로 투병중인 김동재 수비 코치를 찾아 올스타전 우승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경기 선발 투수인 양현종을 제외한 주장 김상훈과 최희섭·이용규·김선빈·안치홍 등 5명의 선수는 올스타전 참가 선수단을 대표해 김동재 코치가 입원중인 조선대 병원을 방문해 10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이 상금은 올스타전 우승팀인 이스타리그 선수단이 투병 중인 김동재 코치를 위해 쾌

투병 김동재수비코치에 올스타전 상금 전달

척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올스타전이 끝난 후 이스타리그 선수단은 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1일 뇌경색으로 쓰러진 김코치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족 뇌가 손상되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자동심장제세동기 비치

○KIA타이거즈와 협찬 보안회사 에스원(S1)이 3일 오전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자

동심장제세동기(AED) 전달식을 가졌다.

KIA는 이날 지원 받은 AED 2대를 3루 관중석 입구와 의무트레이너실에 각각 비치, 운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찬 받은 자동심장제세동기는 급성 심장정지 환자 또는 심장 박동 기능을 잃어 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기로 선수는 물론, 팬들의 응급 상황이 쉽게 사용토록 제작되어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동성고 봉황기 2회전 진출

진흥고는 서울 청원고에 패

광주 동성고가 경기 성남고를 3-2로 제압하고 봉황기 1회전을 통과했다. 광주 진흥고는 서울 청원고에 1-2로 2회전 진출이 무산됐다.

동성고는 3일 수원종합야구장에서 열린 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성남고와의 1회전 경기에서 9회 박건호의 희생플라이로 3-2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1회초 선두타자 김창권이 2루타로 공격의 포문을 연 뒤 3루 도루에 이어 상대 포수의 송구실책 때 홈을 파고 들면서 선취점을 기록했다.

동성고는 2-1로 앞서고 있던 8회말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허용했지만 9회초 뒷심을 발휘했다. 문희의 좌전안타와 김창권의 번트 내야안타로 만든 1사 1-2루에서 폭투가 나오면서 2-3루, 2번 박건호가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를 불러들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진흥고는 선발 투수 고재환이 9이닝 4피안타 4사구 7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를 선보였지만 타선의 부진으로 1-2, 1점차 패배를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여제는 신지애

세계랭킹 2주연속 1위

신지애(22·미래에셋)가 여자프로골프 세계 순위에서 2주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신지애는 3일(이하 한국시간) 발표된 순위에서 10.48점을 받아 10.47점의 크리스티 커(미국)를 간발의 차로 앞서 선두를 유지했다.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은퇴하면서 5월3일 처음 세계 1위에 올랐던 신지애는 7주간 자리를 지키다 맹장 수술 이후 휴식을 취하는 사이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6월21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슐



라이트 클래식 우승을 차지하면서 2위로 물러났다. 지난 주 1위를 되찾았다.

미야자토가 10.33점으로 3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10.23점으로 4위다. 2일 끝난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청야니(대만)는 9.93점으로 5위에서 변화가 없었다.

남자프로골프 세계 순위에서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70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이 12위, 양용은(38) 30위, 최경주(40)는 44위다.

/연합뉴스



파도 타며 여름의 세계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서 열린 유에스(US)오픈 서핑대회에서 여자부 예선에 참가한 펠리시타 펠머티어(호주)가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GOLFZON

광주 최고시설 스크린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